

자료명	2025년 4분기 제조업 기업경기전망지수 조사
엠바고	9월 29일(월)자 조간(통신, 인터넷 등은 9/28(일) 12:00부터)
문의처	경제정책팀 김현수 팀장(010-3751-8953, 02-6050-3442), 하서영 연구원(3447)

대미 관세 충격에 제조업 경기 위축 커져.. 정부의 방파제 역할 절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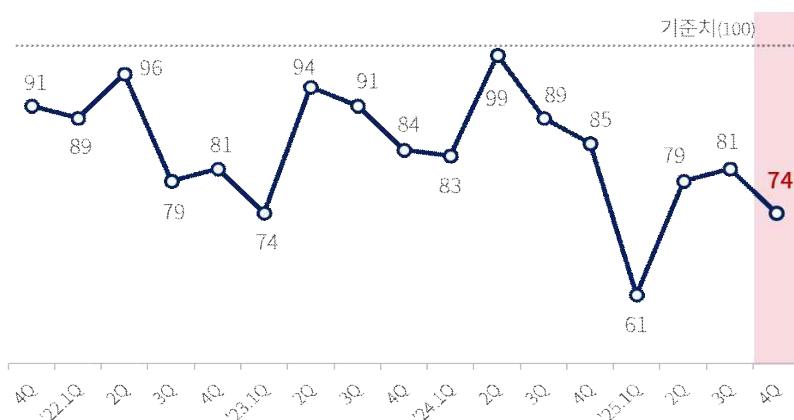
- 4분기 BSI 74로 전분기 대비 7p 하락.. 2분기 연속 상승세 이어가지 못하고 하락 전환
- 관세 영향에 자동차(60), 철강(63) 부진 지속, 잘나가던 화장품(69), 제약(87) 큰 폭 하락
- 관세부담, 공급과잉, 내수부진 삼중고에 대구(60), 전남(60), 강원(65), 부산(66) 부정전망 우세

대미 관세의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제조업 체감경기가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회복세를 보이던 수출기업의 부정적 전망이 두드러져 하락세를 주도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가 전국 제조기업 2,275개사를 대상으로 ‘2025년 4분기 기업경기전망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3분기 전망치보다 7p, 작년 4분기에 비해서는 11p 하락하며 ‘74’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 2분기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회복기회가 보였으나 BSI지수가 다시 꺾이면서 결과적으로 2021년 3분기 이후 17분기 연속으로 기준치인 100이하를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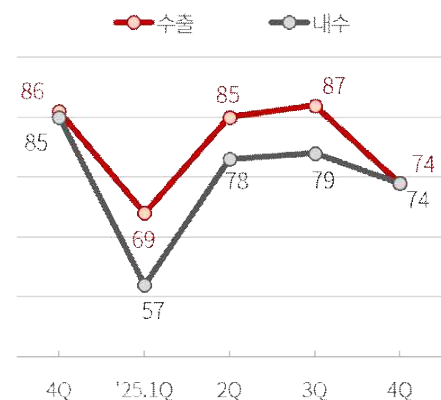
자동차, 철강, 제약 등 업종에서 관세가 이미 발효됐거나 고율관세 부과가 예고되면서 수출기업(-13p)의 전망치가 내수기업(-5p)보다 큰 낙폭을 보였다. 또한, 건설경기 부진과 공급과잉의 영향으로 비금속광물, 석유화학, 정유 업종의 전망도 어두웠다.

<그림1> 대한상의 제조업 경기전망지수(BSI) 추이



<그림2> 수출·내수기업 BSI

※매출액 중 수출비중 50%이상이면 수출기업, 아하는 내수기업



* BSI는 지수가 100이상이면 해당 분기의 체감경기를 이전 분기보다 긍정적으로 본 기업이 많다는 의미이고, 100이하면 그 반대다.

관세 영향에 자동차(60), 철강(63) 부진 지속, 잘나가던 화장품(69), 제약(87) 큰 폭 하락

모든 업종의 전망치가 기준치(100)에 못미쳤다. 자동차(60)는 9월부터 일본, EU보다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불리한 상황에 놓이면서 전망치가 전분기 대비 16p 하락했다. 전방산업인 건설경기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비금속광물(56), 철강(63), 석유화학(63) 업종의 전망치도 70선 이하를 기록했다. 철강의 경우는 50%의 대미 관세, 석유화학은 중국 및 중동 발 공급과잉으로 어려움이 배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2분기 전망치가 각각 113, 109로 기준치를 상회했던 화장품과 제약·바이오 업종의 전망치는 1분기만에 100 이하로 떨어졌다. 수출상승세가 주춤한 화장품(69)의 경우 미국의 소액소포 면세 혜택 폐지도 하락요인으로 작용하며 전망치가 가장 큰 폭(-44p)으로 하락했다. 제약·바이오(87) 업종은 미국이 수입 의약품 고율관세 부과를 예고하면서 불확실성이 커지며 부정적 전망으로 돌아섰다.

반도체(98)와 식품(98)이 가장 선방한 업종이었다. 반도체의 경우, 미국의 관세 불확실성이 있지만 AI와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에 따른 탄탄한 수요를 기반으로 기준치에 근접한 98을 기록했다. 식품은 명절특수와 K-푸드 수출 호조로 전분기보다 소폭 상승했다.

<그림3> 2025년 4분기 주요 업종별 BSI 전망치



<표1> 주요 업종별 對美 수출실적

업종	'25.1~8월 누적 증감률	8월 증감률
반도체	+25.0	+35.2
화장품	+14.8	-5.6
전기장비	+21.9	+15.2
제약	+46.5	+3.0
자동차	-15.1	-15.2
자동차부품	-5.0	-17.2
철강	-15.8	-36.6

※관세청, 전년동기비

관세부담, 공급과잉, 내수부진 삼중고에 대구(60), 전남(60), 강원(65), 부산(66) 부정전망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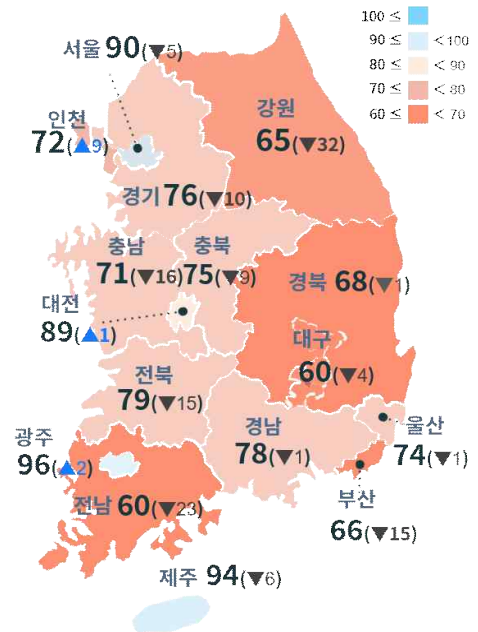
광역시·도별 BSI 전망치 역시 전 지역에서 기준치(100)를 밑돌았다. 특히, 대구(60)와 경북(68), 부산(66)은 관세여파로 지수가 70선 이하를 기록했다. 대구(60)의 경우 자동차 부품 및 섬유산업의 관세 부담이 영향을 미쳤고, 철강, 전자업종 비중이 높은 경북과 금속, 기계 업종의 비중이 큰 부산도 부정적 전망이 우세했다.

3대 석유화학단지가 위치한 전남(60), 충남(71), 울산(74)도 주력 제품의 수요둔화와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수익성 악화가 지속되면서 전분기보다 지수가 일제히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강원(65)은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에 따른 비금속광물 부진 여파로 전분기대비 가장 큰 하락 폭을 보였고, 경남(78)은 중국과의 경쟁심화로 중소형 조선사 및 기자재업체들의 수주가 감소하면서 기준치를 밑돌았다.

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팀장은 “그동안 부진한 내수를 수출 회복세가 뒷받침해 왔으나, 최근 미국의 관세 부담이 본격화되면서 대미 수출 기업은 물론 중소 협력업체의 경영여건까지 악화될 우려가 있다”며 “대외 악재에 우리 제조업 경쟁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정부는 긴급 유동성 공급을 비롯한 규제완화, 투자 인센티브 강화 등 지원책을 확대해 대외충격을 버틸 수 있는 방파제 역할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림4> 2025년 4분기 지역별 BSI



< 조사 개요 >

- 조사기간 : 2025. 9. 1(금) ~ 2025. 9. 12(금)
- 응답기업 : 전국 제조업체 2,275개사
- BSI지수 산출방식

$$\left[\frac{\text{'호전예상'기업수} - \text{'악화예상'기업수}}{\text{응답기업수}} \right] \times 100 + 100$$

- 참고사항
지역별 BSI는 10인 미만 제조업체를 제외하고 집계함에 따라 각 지역상의 BSI 수치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